

10월에 내한하는 프랑스의
세계적인 이미지 컨설턴트

JOSY

'외모'는 이제 언어 이전의
자기를 표현하는 수단.
때문에 자신을 최상의
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
중요한 의미를 갖는다.
결점이라 생각되는 것
마저도 매력적이고 개성으로
승화시키는, '변신의
마술사' 조시 메르메를
통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의
세계를 찾아가 보자.

“당신의 외모를 변화시킬 때, 당신의 삶 또한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”

MERMET



세계적으로 이름난 이미지 컨설턴트 조시 메르메(Josy Mermet)가 한국 '랑콤'의 초청으로 10월 말 우리나라에 온다. 랑콤의 신제품 '옴부루 십뿔(Ombre Subtil)' 출하에 맞춘 이번 방한에서 그녀는, VIP고객 1백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미지 상담을 할 예정.

우리나라에 알려지지 못한 안되지만, 강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직업 '이미지 컨설턴트'의 세계를, 프랑스의 거장 조시 메르메와 함께 찾아가 보자.

조시 메르메는, '이미지 카운슬링의 개척자'라 불릴 만큼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다. 현재, 이미지 컨설팅 에이전시 '캐릭터리스트'와 파리 브랭당백화점 VIP코너에서 그녀를 찾는 고객들-정치인, 연예인, 그밖의 유명인사들-의 상담을 해주고 있다.

"나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파악하고 또 기억합니다. 그 사람의 외모, 헤어스타일, 피부 타입, 옷차림, 목소리, 행동까지..."

다른 사람의 개성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일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다. 단지 몇분간의 질문과 대화로, 조시 메르메는 그 사람의 유니크한 매력을 발견

하고, 또 발견토록 도와준다.

일러스트레이터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이루어진 그녀의 팀은, 그 고객에게 꼭 맞는 색상을 제안하고 의상의 소재·길이는 물론 화장법,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향수 자동차 스타일까지도 제안해 준다. 이런 정보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 시각화되어 고객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이다. 상담에 드는 비용은 32만원 선.

각 사람의 가장 개성적인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그녀의 일이지만 강요를 하지는 않는다. 그리고 자신의 취향이나, 유행에 따라 바뀌는 일도 절대 없다. 각 사람의 '유니크한 모습'을 최상의 아름다움의 자리에 놓기 때문이다.

조시 메르메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고객을 분류한다. ①내추럴 ②드라마틱 ③다이내믹 ④리파인드.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?

이제껏 가져왔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러나 조시 메르메는 말한다. "당신이 외모를 변화시킬 때, 당신의 삶 또한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"라고. □

글·정현선 기자